근본 가치를 가진 네 유형의 토큰

- 저자 : Nick Tomaino
- 원문 : “On Token Value” (2017.8.7)
- 분류 : 일부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근본 가치를 가진 네 유형의 토큰

토큰 유형	기능/설명	사례
전통적 자산 토큰	전통적 자산을 암호기술로 재현함 [설명] 전통적 자산은 증권, 부동산, 황금 등이다. 이 유형의 토큰이 가장 보기 힘들다. 시장 가치로 따져서 상위 10개 가운데 이 유형은 없다. [주석] 상위 10개 코인 Bitcoin (BTC) Eethereum (ETH) Ripple (XRP) Bitcoin Cash (BCH) Litecoin (LTC) Nem (XEM) Eethereum Classic (ETC) Dash (DASH) IOTA (IOTA) Monero (XMR)	USDT (Tether) DGD (DigxDAO)
이용권 토큰 (usage token)	디지털 서비스에의 접근을 제공함 [설명] 중앙집중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통제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때 토큰이 필요하다.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반인은 공적 디지털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더 쉽다. 이 토큰의 근본 가치는 디지털 서비스의 바탕에 있는 자원의 특유함과 탈중심화된 디지털 서비스 자체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날 가장 흔한 유형이며 비트코인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다. 상위 10개 토큰 가운데 9개가 이용권 토큰이다.	BTC ETH BAT (Basic Attention Token)

노동권 토큰 (work token)	탈중심화된 조직에 노동을 기여할 권리를 제공함 [설명] 기여한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노동권 토큰의 근본 가치는 토큰 보유자가 탈중심화된 조직에서 얻는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효용은 보수(fee)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성가(聲價)의 형태로 올 수도 있다. 노동권 토큰들은 위의 두 유형보다 훨씬 덜 이해되고 있다. 사례들이 많지는 않고 몇 개—Augur의 Reputation (REP), Maker DAO의 Maker (MKR)—있다. Augur의 경우 탈중심화된 예측 시장을 이용하는 데 REP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대신에 REP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건들의 결과에 관해 보고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보고는 전체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하다. Maker의 경우 MKR을 보유한 이해관계자들이 탈중심화된 조직을 다스리는 사람들로서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REP MKR
혼합형 토큰 (이용권 + 노동권) Hybrid (usage + work)	디지털 서비스에의 접근과 노동을 기여할 권리를 제공함 [설명] 많은 미래의 토큰들은 이용권 토큰과 노동권 토큰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것이다.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할 때 ETH는 이용권 토큰(Ethereum Virtual Machine을 사용하려면 Gas—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동의 실행 수수료—가 필요하다)인 동시에 노동권 토큰(거래를 확증하고 그 작업에 대해 보수를 받는 권리를 ETH가 부여할 것이다)이 될 것이다. Protocol Labs의 Filecoin(FIL)이 또 하나의 혼합형 토큰의 사례가 될 듯하다. 탈중심화된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에도 FIL이 필요하고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기여하는 데에도 FIL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혼합형 토큰이 상위 10개 토큰 가운데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FIL ETH (with Casper)